

50주년 기념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연구자, 임상가, 그리고 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RDE의 창간 50주년이라는 매우 중대한 순간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1975년, 아직 국내에 치과보존학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절, 선배 연구자들의 학문적 열정과 헌신으로 '대한치과보존학회지', 영문으로는 '*Korean Journal of Operative Dentistry*'라는 이름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치과보존학의 기초와 임상을 아우르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국내 치의학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 오늘의 RDE는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국제 학술지로 성장하였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RDE는 Pubmed, Scopus, Web of Science 등 저명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었고, 올해는 드디어 Clarivate에서 산출하는 영향력 지수인 Impact Factor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의 RDE를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편집장으로서, 그리고 연구자와 심사자로서 헌신하신 수많은 분들의 노력이 RDE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꾸준히 수준 높은 연구를 투고해 주신 저자들, 성실히 논문을 평가해 주신 리뷰어들, 그리고 언제나 저널을 신뢰하고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이야말로 RDE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열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50년은 치의학의 패러다임이 끊임없이 변해온 시기였습니다. 수복 재료는 단순한 충전재를 넘어 생체활성을 지닌 '지능형 재료'로 발전했고, 근관치료는 감염 제거를 넘어 조직 재생으로 그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등이 연구와 임상에 깊숙이 스며들었고, 이제 치과보존학은 하나의 융합 과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RDE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나누는 열린 플랫폼이자, 세대를 잇는 학문적 가교로 기능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50주년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되새기고, 동시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묻는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RDE는 현재의 전통 위에 새로운 혁신을 더해, 더 넓은 세상 속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생체재료 연구, 재생치의학, 디지털 치의학,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진단과 치료 등 치의학의 미래를 이끄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포용하고, 과학적 근거와 임상적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저널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RDE는 학문적 신뢰성 및 연구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편집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과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연구자들에게 공정하고 품격 있는 학술의 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나아가 젊은 연구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이룩해 온 성장을 넘어 보다 성숙한 저널로 나아가는 새로운 반세기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DE의 50년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과거의 업적을 기념하는 동시에, 새로운 50년을 향한 약속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RDE가 걸어온 길이 치의학의 발전과 함께해 왔듯이, 앞으로의 길 역시 치의학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속에, RDE는 앞으로도 기초와 임상, 전통과 혁신을 잇는 다리로서 더 큰 비전과 책임을 품고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편집장으로서 회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산

Restorative Dentistry and Endodontics 편집장